

기고

청렴은 말(言)이 아니라 행동(行動)이다

김정용 장흥소방서 예방홍보팀장



‘공렴公廉’이란 단어는 다산 선생이 28세에 문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가면서 ‘공렴으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겠다’라며 다짐한 시에서 나온 것으로 공평, 청렴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에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정과 청렴은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며, 여기에

더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이다.

공무원이 되고 30년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청렴이다.

‘청렴’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말한다.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씨를 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하는 일 또는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청렴이란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것이 청렴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막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와 관련 장흥소방서에서도 전 직원들의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 개사 2주년에 맞추어 행동 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이 솔선수범하여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청렴을 실천하고 있다.

주요 약속으로는 ▲성희롱·성추행·성차별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감찰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금지 ▲상호 존중하기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 금품수수금지 ▲학연·혈연·지연 등 특연인에게 특혜 금지 ▲소방공무원으로 품위손상금지 등이 있다.

이처럼 청렴은 공직자로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에서 청렴이라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보다 더 청렴한 국민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국가 버스 승강장 문화 개선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복지란 많이 가진 개인이나 국가가 이웃이나 국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모두가 더불어 편리하게 잘 사는 사회와 국가를 말하며 복지사회가 복지국가를 만든다.

우리나라는 도로표장이 선진국 수준이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인 버스를 고령자들이 많이 활용하며 대도시에서는 지하철 이용을 많이 한다.

지자체는 교통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 버스 승강장이나 지하철 승강장을 선진국 수준의 복지 시설을 갖추었다. 버스 승강장을 보면 지자체별로 다투어 편의 시설을 하고 있는데 버스터미널은 화장실 시설이 잘되어 있으며 버스 승강장에는 도착 안내 단말기 설치가 되어있으며 온실 승강장을 다투어 설치하고 있다.

추운 겨울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와 여름철 더위를 피하려고 냉온 선풍기 장치와 겨울에는 온풍기 장치가 되어 있으며 의자는 온열 판을 설치해 앉으면 따뜻해지게 되어있어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흐뭇한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나라는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선진국 대열이 들어섰지만, 빈부의 차가 심하고 선진국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편차가 너무 크다. 그것은 버스 승강장에서 엿볼 수 있다. 어떤 버스 승강장은 선진국 수준의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곳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버스 승강장이 승강장 간판만 설치되어 있지 고객이 앉을

의자도 없으며 그냥 서서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며 차를 기다려야 하는 버스 승강장이 많다.

구청 관계자는 버스 승강장 복지시설은 승객이 많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우선해 복지시설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한다.

광주광역시에선 구청별로 대표적인 복지 승강장을 2-3개씩 설치하여 선을 보이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확장 추진한다고 한다. 여수시의 버스 승강장은 대부분 승강장이 온실 승강장으로 되어 있으며 지체 장애 선거공약 사업으로 추진했다 한다.

승강장 의자가 온열 의자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많은 데 입동이 지나고 겨울 날씨 인대도 광주광역시외의 온열 의자는 작동이 안 되는 곳도 있다. 온열 의자는 온도 센서가 장치되어 있어 사람이 앉으면 작동하며 의자의 온도가 18도 이하면 자동으로 작동하고, 25도 이상이면 자동으로 꺼진다고 한다. 시설을 했으면 고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관계자는 업무 추진을 해야 한다.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출사표를 낸 후보들은 다투어 버스 승강장 복지시설을 거론 했다. 그러나 당선된 후 버스 승강장 복지시설에 대해 관심을 둔 지자체장들은 보이지 않는다. 선거 때 주민들에게 한 공약이라면 임기 내에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추운 겨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승강장 관리 업무를 맡은 관계자는 창의력을 발휘해 주민들의 찬사를 받는 업무추진을 했으면 한다.

기고

부지천한(不知天寒)과 선진 집회시위 문화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찰의 보호 아래 자신의 주장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 당시의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전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식에 감탄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절제된 자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하며 비폭력을 외쳤고 경찰에서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사회 집회시위 문화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집회 및 시위는 헌법 제2장 제21조에 의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며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된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이지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집회시위를 기존 통제와 관리의 관점에서 탈피해 보호의 대상으로 판단, 집회시위 주최측에 전적으로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여 평화적으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등 새로운 집회시위 패러다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법 테두리내의 준법집회와 시위는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집회현장의 경찰력 배치를 최소화하는 등 교통소통과 안내 위주로 집회 시위 현장을 관리하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유도하고 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닌 만큼 선진국을 표방하는 우리 사회의 불법 무질서 폭력 시위 문화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자율과 책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당연히 지켜야 할 우리 모두의 약속임을 잊지 말자.

우리의 고사성어 중에 부지천한(不知天寒)이란 말이 있다.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면 날씨가 추운줄 모른다 이지만 실상 우리 생활에서는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주위를 살피지 않는 행동을 꼬집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변화하고 구성원간 구구이념 등이 상반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자기 또는 집단의 목적 달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하곤 한다. 과거에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체증까지 일으켰던 불법집회가 점차 사라지고 평화롭고 절제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집회개최 장소에는 주최측과 경찰과의 약속인 질서유지선 폴리스라인이 설치되게 된다.

하지만 폴리스라인을 단순 귀찮은 경찰 통제선 정도로 생각하고 이를 침범하여 무질서한 집회를 개최하면서 주최측과 경찰간 마찰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선량한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불편을 안겨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사는 곳은 어디나 사정이 같듯 유럽도 집회 시위가 많기로 유명하지만 폴리스라인은 정확히 지켜지고 있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찰은 매우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비단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폴리스라인 준수에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서로간의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부 이익집단의 무질서 불법적 의견표출성 시위는 이젠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뿐만 아니라 눈살만 찌푸리게 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현행법에는 집회를 하고자 할때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시작 48시간전 관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로콜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원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mpm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